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슬플 때**



지금도 가끔씩 생각나는 한 분이 계십니다. 2년쯤 전,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때 새벽 5시쯤이면 아직 피곤이 덜 풀린 무거운 몸을 끌고 편의점에 들르셔서 아침 식사 대신으로 बे지밀과 호빵을 드시던 아저씨 인데, 공사에서 막노동을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아저씨와 친해졌고, 빵을 드시는 잠깐 동안 이런 저런 이야기들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아저씨는 큰 사업을 하시던 돈 많은 부자 사장님이셨다고 합니다. 사업이 번창하던 중 갑작스럽게 부도가 났고, 그 충격으로 아저씨는 쓰러지셨는데, 그래서 병을 얻었고, 기억도 많이 잃어 버리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아내도 못 알아 보셨다고 하니 병이 깊으셨던 것 같습니다. 가족들의 보살핌과 꾸준한 병원 치료덕분에 건강은 다시 회복되었지만, 그 후유증으로 기억력이 많이 떨어져서 가끔씩 집을 잃어버리시기도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늘 손에다 집 주소와 전화번호를 적고 다니셨습니다.

그때 아저씨가 일하시던 곳이 대구에 있는 모 대학교 신축건물 이었는데, 지금은 시집을 간 딸이 한명 있는데 그 딸이 대학생 때 다니던 학교가 바로 그 학교였다고 합니다. 아저씨는 딸을 너무 예뻐 하셔서 늘 학교까지 직접 승용차로 데려다 주셨는데, 지금은 거기서 막노동을 하는 처지이다 보니 행복했던 옛날 생각도 나고, 지금의 자신의 형편이 초라하게 느껴져 많이 괴로우셨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진짜 가슴아픈 사연은 마지막에 아저씨가 하셨던 한 마디 말씀에 있었습니다.

“ 내가 진짜 힘든 건, 지금 내가 고생 하는 것도 아니고, 옛날 생각나서도 아니야. 몸 아프고, 기억력 떨어진 것 때문도 아니야. 내 처지가 이렇다보니 우리 딸한테 지금은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거 그게 제일 힘들어.....”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을 사던 사장의 자리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막노동꾼으로 전락한 것보다도, 건강하던 몸이 이제는 집도 잃어버릴 정도로 쇠약해 진 것보다도, 아저씨는 당신의 딸한테 아무것도 해 줄 수 없다는 것이 더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들은 당신들의 자식들에게 당신들이 가지신 최고의 것은 늘 자식들 몫으로 떼어 놓는 분들이십니다. -이창수 -

◀눈물나는 밤엔 우머의 촛불▶ **기말고사 체육시험**
 어느 학교의 기말고사 체육시험에 출제된 골프에 대한 주관식 문제.
【문제】 "파 3짜리 홀에서 한번에 쳐서 들어가면 뭐라고 부르는가?"....정답은 "홀인원 Hole in One".
【우리의 A학생...】 " 사장님, 나이스 샷~!"

교회목표 하나님만이 삶과 교회의 주인	'2003년 교회생활'건강한기정건강한교회' 갈보리 교회 Calvary Presbyterian Church	교회생활지침 누가 10:37 *자원함 -섬김과 봉사 *익명성 -명예
제 5권 7호	기초성경공부이수. 정장으로 예배. 남 이야기 금지	2003년 2월 16일
☎520-9464. 71 Khyber Pass Rd.(The Church of the Holy Sepulchre) calvary.ca.to		

'NO' 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하나님께 나의 오만을 없애 달라고 청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NO' 라고 말씀하시며 오만은 내가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네가 포기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인내를 달라고 청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NO' 라고 말씀하시며 인내는 고난의 산물이라고, 그것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네 스스로 얻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행복을 달라고 청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NO' 라고 말씀하시며 나는 은총을 줄 뿐이지 행복은 너에게 달려있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영혼을 성숙시켜 달라고 청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NO' 라고 말씀하시며 성장은 네 스스로 하는 것이고 나는 네가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가지를 쳐줄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내 고통을 덜어 달라고 청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NO' 라고 말씀하시며 고통을 통해 네가 나에게 더 가까워질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시는지 여쭙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YES' 라고 말씀하시며 그래서 당신 외아들을 나에게 보내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만큼 내가 다른 이들을 사랑하게 도와달라고 청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 아, 드디어 네가 그 생각을 했구나!" 하셨습니다.

엄마가 딸에게
 배고픈 때에는
 쇼핑을 하지마라
 대개 불필요한 것들을 많이사게되고
 돈을 낭비하기 쉽다

아빠가 아들에게
 가끔 낚시를 가거라
 낚시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며
 상상력을 발달시키기도 한다

주 일 예 배

(* 표에 일어서시기 어려운 분은 앉으셔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영광송 Gloria	"Calvary"	다 같이
참회의 기도 Confession Pray		
용서의 선언 Proclaim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인도자
*찬송 Hymn	23장	다 같이
*성서교독 Response Reading	44(요한 1장)	
*신앙고백 Apostle's Creed	사도신경	
교회소식 Welcome & Announcements		
어린이 시간 Sunday School		주일학교
찬송 Hymn	509장	다 같이
기도 Prayer+		김영길 집사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누가 22:54-62	인도자
성가대 찬양 Choir		나무심자가성가대
설교 Sermon	'베드로의 약함'	김성국 목사
특별연주 Hymn	"너 축복하려고/ 주기도문"	박경주, 이요나
헌금기도 Offering Pray		인도자
응답송 Response Song	'이 믿음 더욱 굳세라' (1절:박 실, 변민강 집사 가정, 2절:같이)	다 같이
축도 Benediction		김성국 목사

◆2월의 예배위원◆

일자	주일기도	헌금위원	가족찬송	Tea Time
2	김교섭	김경숙	이세진, 박혜련	경덕현, 고성일
9	김순자	김동숙	최득수, 오지영	권용일, 김경구
16	김영길	김반석	박 실, 변민강	김교섭, 김덕준
23	김종건	김봉희	정종일, 이선애	김반석, 김성국

'2003년 교회표어
"건강한 가정, 건강한교회"(마 18:4)
부모의 기도받는 자녀
남의 형편 헤아리는 신앙

*3주간 예배, 친교참석 이후에
등록 자격이 주어집니다
*여러교회를 다녀 보신후 결정
하셔야 바른 판단이 됩니다

주일예배: 낮 12시 | 수요일예배: 저녁 7:30 | 아동, 학생부: 주일 낮 12시 | 청년부: 토 저녁 7시

☆말씀 묵상중 떠오른 말씀의 의미가 가슴을 설레게 하여 당장 수요일예배에서 설교했습니다. "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교회는 세상을 이기려고 해야지 교회가 교회를 이기려고 하면 교회 존재의미를 잃어버린것이라는 뜻을 깨닫게 했습니다. 우리 같보리교회가 이겨야 하는 대상은 세상입니다. 다른 교회와는 친구요 동반자입니다.

- 1.교우소식
*등록하심을 축하합니다. 이일원, 김혜경 성도(2선교회), 영운, 전운
☎521-5928 ☐ 16 Worley Pl. St.John's Park.
*개업:최득수 집사. Cheap Cabs Taxi. 개인호출 0800-2-123-456
- 2.'부활절 헌금을 위한 성경쓰기 봉헌'(담당:박병민 집사, 황준작:김영길 집사)
*자원하신 교우께서는 준비된 규격종이를 사용하셔서 필서하여 주십시오.
- 3.남여선교회: 매월 마지막 주일 Teatime시간에 정기월례회를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 4.새벽기도회: 일주일에 하루 갖는 새벽기도회는 즐거움이 될 수 있습니다. 평일엔 가까운 교회에서 새벽기도를 하시면 더 좋습니다. 기도로 영이 맑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 5.친선축구경기(남선교회, 청년): 오늘 은혜와진리교회(Howick)와 갖습니다.
*선수로 뛰실 교우들을 기다립니다(문의: 감독 박일영 집사, 주장:이재영 집사)
뛰는 남편의 눈은 아내의 응원을 안 보듯하지만 흰히 다 보며 어깨에 힘준다는 것 아내들은 모를겁니다
<시간> 오후 5시 <장소> Edgewater college, 30Edgewater Dr.Pakuranga



◀착한 시인들▶
달이 떴다고 전화를 주시다니요
-김용택-

달이 떴다고 전화를 주시다니요
이 밤 너무 신나고 근사해요
내 마음에도 생전 처음 보는
환한 달이 떠오르고
산 아래 작은 마을이 그려집니다
간절한 이 그리움들을,
사무쳐 오는 이 연정들을
달빛에 실어
당신께 보냅니다

세상에,
강변에 달빛이 곱다고
전화를 다 주시다니요
흐르는 물 어디쯤 눈부시게 부서지는 소리
문득 들려옵니다.

어느덧...
낮은 여름인데 밤은 가을입니다.
낮은 초록인데 밤은 은빛입니다.
가을 속내를 내보이는 달빛으로
무언가 가을을 타야 할 것
같은데 도무지 떠오르는 가을
감흥이 없습니다.
무심코 마당에 나간 김에 하늘
을 보았더니 만삭되어 가는 달
이 있었습니다.
섬진강 시인에게 비쳤던 그 달
일 겹칩니다